



“도와주러 왔다가 감사하는 마음 배워요”

정신지체 장애인 시설서 봉사 '서울구치소 불심회'

울 봄, 입구에 향이리를 가져다 놔다. 여기에 된장 고추장을 집에서 퍼와 담아 넣었다. 낮은 담장 밑에는 봉선화를 가지런히 심었고, 뒷밭에 상추씨를 뿌렸다. 시래기도 벗질로 엮어 담벼락에 매달아 놓았다.

6월 2일, 의왕시 정신지체 장애인시설 녹향원에서 만난 서울구치소 불심회 이남수 회장(54·원광)은 녹향원을 130여 불심회원이 '함께 가꾸는 집'이라고 말했다. 녹향원 마내동이 교일이(21·정신지체1급), 정환 씨(33·정신지체1급), 준환 씨(29·정신지체2급) 등 7명 모두가 불심회원의 '동생·아들'이 되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오늘은 불심회원이 목욕 봉사하는 날. 입지감치 녹향원은 들쭉거렸다. 오전내내 장부만 연신 내다보며 안절부절 했다고 배경주 사회복지사가 귀띔했다. 불심회원이 매일 근무가 끝나면 순번을 정해 바깥나들이, 등산, 운동 등으로 원생들과 호흡을 같이하다보니, 어느새 오후 6시쯤이면 녹향원은 한바탕 전쟁을 치른다.

잠시 후, 불심회원이 거실로 들어서자 괴성을 지르며 물러들었다. 정환 씨는 이 회장의 두 뺨에 얼굴을 비비고, 한국 씨(45·정신지체1급)는 문장일 불자(36·정도)의 두 손을 맞잡는다. 맑은 듯해도 서로 눈빛이 반기음이 묻

어났다. 하지만 목욕이 시작되면 녹향원 식구들과 실랑이가 벌어진다. 울부짖다 못해 방바닥에 머리를 찧는 준환 씨,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교일이, 되레 간식준비, 청소 등은 '누워서 떡먹기'다. 7명의 정신지체 장애인의 웃을 벗기는 것부터 비누질, 물기 닦아주기, 빨래에 이르기까지 손 가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도 짓고 나면 개운해 합니다. 하루 근무, 24시간 당직, 1일 비번으로 이어지는 근무형태로 봉사활동이 조금은 벅차지만 보람과 기쁨만큼은 한없이 큼니다. 뭔가 주려고 오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배워갑니다.”

회원 130여명 순번 정해 매일 방문 목욕·등산·운동·나들이 함께 해 “우리는 눈빛으로 통하는 가족”

문장일 불자는 이곳에서 2년 넘게 비지땀을 흘리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다른 불심회원들도 마찬가지였다. 특별히 봉사활동에 의미를 두지 않았으나, 다만 일상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서울구치소 불심회 이남수 회장(사진 오른쪽)이 의왕시 정신지체장애인 시설 녹향원에서 박진호씨와 목욕봉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불심회의 봉사활동은 서울구치소 개선교 모인 신우회원의 개별적인 참여도 이끌어냈다. 지난해 3월부터 녹향원 봉사를 해온 박진호 씨(35·보안과)는 자원봉사에 종교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구치소 불심회의 봉사활동은 지난 87년 창립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에 시작한 녹향원을 비롯해 안양 명륜보육원 봉사, 안양시 주변 노인시설 경로잔치 등 꾸준히 소외된 이웃과 만나고 있다. 또 아무진 활동을 위해 4년 전부터 불심회 내 봉사소모임도 꾸렸다. 장의염불팀과 자원봉사팀이 바로 그것. 활발한 소모임은 곧바로 회원들의 참여율도 높여 불심회 실행 활성화로 이어졌다.

“불심회원 모두가 교도관을 전직으로 여기듯이 봉사도 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봉사가 따로 있겠습니까?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을 베푸는 거지요. 다만 따뜻한 정이 있어야만 봉사의 의미가 깊어진다고 봅니다.” 이남수 불심회장이 말하는 '봉사철학'은 이렇다. 마음가짐이 사심 없어야 진정한 봉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회장은 한 마디 덧붙였다. 날마다 업무에 치여 살지만, 불자교정 인이아말로 구치소 수감자들은 물론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겪는 '마음의 정역살이' 까지도 홀출 틈을 하는 일터봉사자라고

의왕=김철우 기자



도와주세요 “얹기만이라도 했으면...” 20여년 투병...가족조차 등 돌려

“뺨소니 사고에 20년 간 하반신 마비, 장기투병으로 육창까지 생겨 일어나지도 안지도 못하는 신세...”



“뺨소니 사고에 20년 간 하반신 마비, 장기투병으로 육창까지 생겨 일어나지도 안지도 못하는 신세...”

도움을 주실 분은 후원계좌 농협 계좌번호 : 053-01-243778(예금주 : 생명나눔을 이용하면 된다. 02)734-8050

김철우 기자

고사리 손에서 피어난 이웃사랑 삼양어린이집 어린이·부모, ‘아나바다 장’ 열어



서울 강북구 미아2동에 소재한 삼양어린이집(원장 남경희)이 나눔의 보살핌을 실천하는 ‘아나바다 장’을 열었다(사진).

5월 25일 삼양어린이집 운동장에서 열린 이날 장터는 어린이집 아이들과 학부모가 가지고 온 의류나 장난감, 일상용품 등을 전시 또는 판매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자는 취지로 열린 나눔행사. 그래서 이름도 아끼고, 나누고, 바퀴 쓰고, 다시 쓰자는 뜻을 담은 ‘아나바다 알뜰 나눔장터’로 정했다.

장애인 작업시설 운영 진각복지재단, 구청과 위탁계약

서울 도봉구지역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보호작업시설이 7월 1일 문을 연다.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효암)은 6월 2일 도봉구청과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에 대한 위·수탁 운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각복지재단은 산하시설인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옆에 1백여평의 가건물을 건립,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보호작업을 실시한다.

박봉영 기자

현대불교와 좋은 벗 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 벗 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모두 동참 가능>

- 능합니다.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1구좌 1만원입니다.>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시십시오.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기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인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한월등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한월등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

■ 첫금내신분

- 대구 정안농산 - 3만6천원
- 부산 이재권 - 5만원
- 서울 임재양 - 1천280원
- 천안 윤석길 - 2만7천130원

■ 알립니다

현재 1차 저금통 수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직접 개봉하여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 나눔의 저금통 신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동방암 법연스님 저금통-100개

■ 나눠드립니다

우리사회에는 현재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1만4천여명이나 되고 6천여명의 소년·소녀가장, 64만여명의 독거노인 등이 한 하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나눔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분양합니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 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아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